솔로몬, 삼진아웃 당한 왕

* 10/7(목) 열왕기상 ❹ 9–11장

통일왕국	분열왕국	
솔로몬 1–11장		
이스라엘의 왕 솔로몬 1–2장	솔로몬의 지혜 3–4장 ► 예루살렘 성전, 왕궁 건축 5장–9:9 · 성전 건축 준비와 공사 · 왕궁 건축 공사 · 성전 봉헌식 · 여호와의 응답 ► 솔로몬의 또 다른 건축 사업 9:10–28 · (20년 만에) 건축 완료 · 유월절, 칠칠절, 초막절(25)	► 지혜와 부귀영화 10장 · 스바 여왕의 방문 · 솔로몬의 플렉스(flex) ► 솔로몬의 배교와 결과 11장 · 후궁 칠백 명, 첩 삼백 명 · 하닷 / 르손 / 여로보암 · 아히야의 예언, 여로보암의 언약 · 솔로몬의 죽음

Before 줄치며 읽기

심판 중에도 유효한
하나님의 은혜를 묵상하며
통독해 보십시오.

After 묵상하기

나의 신앙은
지금,
몇 시입니까?

견고한 터 위에,
안정적인 기반을 세웠습니다.

"원수도 없고 재앙도 없도다(5:4)."

이제 이 축복은 사라지고, 평화가 깨어집니다.
솔로몬을 세운 지혜가 솔로몬을 무너뜨립니다.

• **밝은 〈낮〉이 가고,**
사랑에 헤픈 남자, 천 명의 아내를 둡니다.
왕실의 사치는 과다한 세금, 종교적 부패의 원흉입니다.

아내의 유혹으로, 우상을 숭배합니다.
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을
다 누리고, 하나님을 떠납니다.
쓰리아웃 체인지(three out change) 됩니다(11:9–11).

돌아선 마음에는 후회만 남습니다(전 2:10–11).

사람이 가질 수 있는 모든 것을 가졌던 솔로몬.
용두사미(龍頭蛇尾). 그의 마지막 이야기는 〈분열〉입니다.
이미, 다음 주자를 지목 하셨습니다(11:30–38).

참고도서

100주년기념 성서주석
두란노 HOW주석
성서유니온 열왕기
통성경 길라잡이

“내가 네게 무엇을 줄꼬? 너는 구하라(3:5).” 하셨던 기브온의 하나님이
“모든 민족 가운데에서 속담거리와 이야기거리가 되리라(9:7).” 하십니다.
하나님을 떠난 교만함은, 아웃(out)입니다.

• 어둔 〈밤〉이 오다.

솔로몬은 애굽 왕의 딸과 결혼했습니다(3:1).
호의적인 관계였던 이스라엘의 남쪽(애굽)에서 ‘하닷’이,
북쪽(다메섹)에서 ‘르손’이 길러집니다.
사방에 있었던 평화가 이제, 사방의 원수로 변합니다.

진짜 대적은 그의 등잔 밑, 바로 코 앞,
왕궁에서 길러지고 있었습니다.
여로보암, 그의 이름은 ‘솔로몬의 신하’입니다(11:11).
열두 조각난 옷의 열 조각은, 그의 것입니다(11:30-31).

타락의 씨앗이 결국, 가을의 열매를 맺습니다.
두 사랑, 두 지혜를 가진 솔로몬에게 하나님께서 하신 일은, 그의 왕국을
두 왕국으로 찢는 것이었습니다. 나뉜 마음은 나뉜 왕국으로 이어집니다.

아버지로 인해 거저 주어졌던 권력은 이제, 거저 떠나가 버리고 말 것입니다.

‘그러나’(11:12, 34).

하나님께서 야곱의 축복을 통해,
<유다>에게 약속을 하셨습니다(창 49:8-10).
<다윗>과 언약을 맺으셨습니다(삼하 7:15-16).
솔로몬의 죄악을 보시고도,
유다와 다윗과의 언약을 끝까지 지키십니다.

“그러나 내가 택한 내 종 다윗이 내 명령과 내 법도를 지켰으므로 내가 그를 위하여
솔로몬의 생전에는 온 나라를 그의 손에서 빼앗지 아니하고 주관하게 하려니와(11:34).”

완화된 선언을 하십니다(11:12-13, 34, 36, 39).
심판 가운데서도 완전히 꺼지지 않는 ‘하나님의 은혜’입니다.

하나님의 징계는 다시 돌아오도록 부르시는, 아버지의 ‘사랑의 회초리’입니다(삼하 7:14).
집 나간 탕자를 오매불망(寤寐不忘) 기다리는, 아버지의 마음입니다(눅 15:20).

‘그러나’가 있습니다. 나에게 말씀하시는 ‘그러나’는 무엇입니까?